주님 세례 축일 강론(2019년 1월13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우리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마치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절대 되돌아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째는, 입 밖으로 나온 말이고, 둘째는 흘러간 세월이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놓쳐버린 기회랍니다.

 그리스, 시라쿠라 거리에 가면 아주 유명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날개달린 남자의 동상인데,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겼어요. 앞머리는 머리숱이 엄청 많고 깁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생김새의 동상을 보고는 “이게 뭐지?” 하고 다를 웃고 맙니다. 그러다가, 그 밑에 쓰여있는 글귀를 읽어보면 모두들 깊은 생각에 잠긴답니다.

 이렇게 쓰여 있대요. “나의 앞머리가 길고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사람들로 부터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나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기회는 그렇습니다. 쉽게 잡을 수도 있지만, 놓쳐버리고 나면 절대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후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할 기회는 바로 지금 뿐입니다.

 유명한 뉴스 앵커였죠. 브린클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대신 벽돌을 던져 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그것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 집을 짓기도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고난이라는 벽돌은 다루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에 따라 행복의 기초가 될수도 있고,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세례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로 사실 성탄 시기는 모두 끝이나고, 이제 교회의 달력은 연중 시기로 시작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전례를 함께 하면서, 인류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되새겨 보았습니다. 성탄 대축일을 통해서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구세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짓누르고 있었던 죄와 어둠이 다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단순히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백성을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먼 이국땅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것을 기념한 축일이 바로 지난주 공현 대축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공현 사건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공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의 사명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어느날, 예수님은 요르단 강가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는 대열에 서 있습니다. 한사람 한 사람 세례를 받는 그 대열에 예수님도 함께 줄을 서 계십니다.

 당시 요르단 강에는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 온 수백명, 아니면 아마도 수천 명의 사람들로 꽉 찼을 겁니다. 지금도 요르단 강은 완전 흙탕물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완전 흙탕물. 그 흙탕물 속에 몸을 담그고, 다른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흙탕물 안에는, 소위 말하는 당시의 모든 죄인들이 다 몰려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될지도 모른다는 한가지 희망을 안고…

 아마도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런 더러운 흙탕물에 몸을 담그기를 거부했을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스스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고, 하느님 앞에서 한점 부끄럼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떳떳한 사람들이었고, 제일 먼저 구원될 거라는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 더러운 흙탕물에 들어가겠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겠습니까?

 저편 나무 그늘 밑에 모여 서서 뭐하나 싶어 그냥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 부끄럼 없이 그 강물에, 그 흙탕물에 사람들과 함께 몸을 담급니다. 다른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느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일수 있는 겸손한 마음, 순명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 회개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바로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 될것이라고 몸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의로우신 분이, 죄로 얼룩진 인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과 똑같이 되셨고,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대목에서 하늘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울려퍼집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고 확인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의 확실한 자각을 통해서 비로소 지상에서의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의 자각은 예수님이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내내,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때까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래서,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에게 스스로의 정체성과 사명과 운명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이 예수님의 삶과 운명을 결정했듯이, 우리들 각자의 세례도 바로 이와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도 모두 세례를 받을때, 하늘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사명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운명대로 사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도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정체성에 맞게, 그리고 그 사명에 맞게, 또 그런 운명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